

순천만정원박람회 9일 만에 80만명 '인산인해'

‘2023 전남 방문의 해’ 첫 국제행사 관람객 유치 흥행 물이
10년 전 관람객의 2배 ... ‘가든스테이’ 예약률도 90% 육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가 개막 일주일여 만에 관람객 80만명을 돌파하며 800만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2023 전남 방문의 해’에 열린 첫 국제 행사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전남 권역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82만1771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치른 정원박람회의 같은 기간 관람객(34만3723명)에 비해 2배 넘는 기록이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1일 개막한 이후 일주일 만에 관람객 50만명을 돌파했고, 주말이었던 8일 하루에만 18만명이 찾는 등 북적였다.

개막 후 8일 동안 입장권 판매와 박람회장 음식점, 기념품점 매출 등으로 올린 판매 실적은 24억 원을 넘겼다.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는 동천을 따라 진입할 수 있는 ‘정원드림호’를 처음 도입해 순천역을 통해 박람회를 찾는 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숙박형 체험시설 ‘가든스테이’는 4월 예약률이 89%에 달하고, 다음 달 예약률도 70%를 웃돌고 있다. 정원박람회 핵심으로 꼽히는 가든스테이는 국가정원 안에 조성된 60만평(198만㎡) 규모 숙박동에서 순천 먹거리를 즐기며 하룻밤을 보내는 숙박시설이다.

미래형 생태도시를 내건 순천에는 오는 11일 프랑스 남트시 부시장, 14일 베트남 빈프억성 당서기

장, 16일 싱가포르 팸투어 등 해외로부터 발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갯벌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날’ 행사의 하나로 부여군의 가무악극이 무대에 오르고, 15일에는 어린이 200명이 국가정원 안 내달랜드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며 도 화지에 꿈을 펼친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조성된 무료 박람회 구역인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도 날마다 1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오천그린광장은 맨발로 사계절 잔디밭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상설 공연 ‘카이로스’와 기획 공연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열린다.

지난 8일에는 박람회 관람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토요일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가 시작됐다.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마다 순천 문화의거리, 남문터광장, 장안장작마당, 서문안나소, 청소년수련관 등 거점별로 다채로운 거리공연과 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1조5000억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박람회 완성도에 있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게 준비를 했으니 많은 이가 순천에 와서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일주일여 만에 관람객 8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9일 순천만국가정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봄의 절정을 만끽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총선 D-1년 ... 국회의원 물갈이 열망 높다

광주·전남 5~6명 교체 전망
입지자들 치열한 물밑 경쟁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여대야소(與大野小)나, 여소야대(與小野大)나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좌우된다. 또 차기 대선 전 초선 성격도 띠고 있어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진보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하는 호남 민심은 전국 총선 판세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역 정치권 판도도 뒤흔들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 민주당의 패배 이후, 정치권 전반에 냉소적 반응을 보여왔던 호남 민심이 내년 총선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민도가 높고 역동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 총선이

‘정권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적 특성상 호남에서의 경쟁 구도는 민주당의 강력한 우세 구도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데다 최근에는 무당층이 급증하는 흐름도 형성되고 있어 민주당 독점구도가 일정 부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선전을 자신하고 있고, 진보정당에서는 전북 전주 읍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각 지역구에서는 수성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입지자들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물밑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변수도 즐비한 상황이다. 일단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큰 변수지만 ‘찾단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고 비례대표제만 손을 보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지난 1월 현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적용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여수 갑을 지역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역학구도도 변수로 꼽힌다. 우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 때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 체제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총선 공천을 두고 상당한 혼돈이 예상된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남도의병박물관 차별화된 콘텐츠 갖춰야”

전시 구성 방안 마련 토론회

오는 2025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전시·콘텐츠가 10년 이상의 트렌드를 담아내면서 첨단 기술을 독창적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치·재미·특별함을 추구하면서도 메시지와 경험을 전달하고, 세계관과 팬덤을 통해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관련기사 11면>

전남도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나주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창의육성동에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구성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도의 병, 미디어아트,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박물관 전시·운영, 유적·유물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관측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이 ‘디지털콘텐츠 기술 트렌드와 박물관 적용 방안’, 흥성대 서

경대 교수가 ‘미디어아트 기반 전시기획 우수사례’, 서윤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전시기획의 방법과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남도의병의 콘텐츠화 소재 연구’를, 김진수 광주일보 사진부 차장이 ‘남도의병 관련 유적 현황 및 활용 방안’ 등을 맡았다. 이들은 2025년 6월 나주시 공산면 신국리 일원에 연면적 6884㎡ 규모로 들어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독보적이고 가치있는 콘텐츠로 전국적·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흥성기순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토론에는 최은석 디스트릭트홀딩스 부사장, 정광철 아이디어팩토리 부사장,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 안승준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실장,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 등이 참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환담·인터뷰 ▶2·4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